

고구려 유민의 항쟁과 문화보존

김병호 역사소설가



연자약력

서울대 농대졸업(공학박사)

서울대, 단국대 대학원, 필리핀 돈 마리아노 마르코스대 강사

UN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수석 고문관

소설 '치앙마이', '고구려를 위하여' 집필

문화기행 '우리 문화 대탐험' 집필

서기 668년, 천년동안 동양의 강자로 군림했던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의 끈질긴 공세에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 당나라는 고구려와 같은 강대국이 다시 생겨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20만여명이라는 미증유의 고구려 사람들을 포로로 붙들어가다가 중국의 불모지에 내팽개쳐 버리고.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은 중국으로 끌려간 다음에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지금의 청해성으로 끌려간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며 운남성(雲南省)으로 밀려,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 라후족으로 남아 있고, 한편 이정기(李正己) 장군은 나이 26세에 영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평로절도사를 장악한 다음 산둥반도에 상륙하고 내친 김에 중국의 심장부로 쳐들어가 나라를 세운다. 그때가 서기 761년, 819년까지 4대 58년동안 중국 땅 한북판에 우리 민족 국가가 있었던 것이다.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이래 최초의 민족적 쾌거였다.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 어찌 되었을까. 이정기 장군의 후예들은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지만, 청해성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고구려 유민들은 오늘날도 우리의 옛 말, 풍속, 노래, 전설 등을 간직하며 마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잔명을 보존하고 있다.